

지난 주 말씀 요약: 용서하는 공동체 <골로새서 3장 12-17절>

우리는 좋은 공동체라면 갈등이나 서운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오히려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좋은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는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준을 상대방에게서 찾지 않고 주님에게서 찾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상처를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이전과 똑같은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에는 시간과 서로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내 마음과 오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가 다시 생각나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가 생각날 때 그것을 다시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컸고,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용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갈등보다 사랑이 더 오래 남는 공동체, 서운함보다 은혜를 더 크게 말하는 공동체, 누군가의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상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서운할 수도 있고, 오해하고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 관계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고, 서운함보다 사랑이 더 오래가며, 서로의 실수보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는 용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 정선약 목사

행정 / 선교 / 청년: 박준섭 목사

교육 총괄 / 중고등부 / EM: 하동호 목사

유아부: 김희경 전도사

유치 / 유초등부: 박에스터 전도사

심방: 배은옥 전도사

주 일 예 배

주 중 집 회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유아, 유치, 유년, 중고등부 동시 예배) 금요 기도회 오후 8:00

English Service (EM),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교육부 금요 모임 오후 8:00

주일 성경공부 (EM, 청년) 오후 3:30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주 일 2부 (11시) 예배차량운행

퀵스, 맨하탄: 서정환 집사 347-306-1385

포트리, 팔리세이드파크: 박아브라함 집사 201-421-0089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Tel (201) 784-1974 / Fax (201) 784-1361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New Jersey Harvest Church

제 16권 37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2026년 9월 13일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 함께
* 입 레 송 Hymn	찬송가 9장 1절
* 사 도 신 경 The Apostles' Creed	다 함께
* 경 배 와 찬 양 Praise and Worship	다 함께
* 봉 헌 기 도 Offering	인 도 자
광 고 Announcement	인 도 자
대 표 기 도 Congregation Prayer	1부: 홍현기 집사 / 2부: 박재호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Matthew) 16 : 24
설 교 Sermon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이신왕 목사
찬 양 Hymn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 장)
* 파 송 찬 양 Praise	교 회
* 축 도 Benediction	정선약 목사

*표는 일어서서

다음 주 대표기도 9 / 20 / 26 (1부: 이서구 장로 / 2부: 최진수 집사)

교육부: 주일 예배 오전 11시

EM & 청년부: 주일 예배 오후 1시 30분

교육부	말 씀	설 교	본 문
영유아부	김희경 전도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해요	삼 1:10~18
유치부	박에스터 전도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요	삼 1:15
유초등부	박에스터 전도사	모든 축복은 너의 순종함으로!	창 22:2, 16-18
YOUTH	하동호 목사	You're Asking Your Father	눅 11:5~13
EM	하동호 목사	What Do You Really Own?	마 6:19~21
청년부	박준섭 목사	TULIP #5 성도의 견인 (1)	엡 1:13~14

금요기도회

2026년 9월 18일

<정선약 목사>

오후 8:00

대 표 기 도

에은희 권사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4:1~11

설 교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 기도회

2026년 9월 15일 - 9월 19일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으로 진행합니다.

* 금요기도회와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 (갈 6:1-10)

1. 아이스 브레이크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들었던 '작은 짐'이나 '걱정거리' 한 가지를 가볍게 나눠봅시다.
(예: 직장 업무, 자녀의 말 한마디, 피곤함, 건강, 집안일 등)

2. 말씀 읽기 및 해설 : 갈라디아서 6:1-2, 5, 9-10

- 1)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공동체 (1절)
- 2) 서로의 짐을 지고, 자기의 짐을 지는 공동체 (2절, 5절)
- 2절의 짐(서로 지는 짐) / 5절의 짐(각자 지는 짐)
- 3) 낙심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랑 (9-10절)

3. 함께 나눌 질문

- Q1. 살아오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누군가의 한마디나 작은 도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나요?
- Q2. 혹시 나의 삶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짐'을 회피했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혼자 견디기 힘들어할 때' 외면했던 모습은 없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 Q3. 이번 달 내 주변(마을식구, 이웃, 가족)을 돌아볼 때, "요즘 정말 괜찮으세요?" 하고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짐을 나눠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4. 적용 결단

"당신의 길을 내가 대신 걸어줄 수는 없지만, 당신이 혼자 걷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 구체적인 행동 실천하기
- 합심 기도:
 - 예수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지셨듯, 내 곁의 형제자매에게 따뜻한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온유함과 인내를 주소서.
 - 우리 마을모임과 교회가 정직하는 곳이 아닌, 넘어진 자를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
다시듣기



헌금위원	9/13/26	9/20/26
1부	홍성봉 집사	홍현기 집사
2부	김영옥 집사	김현수 집사



venmo

헌금은 들어 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Offering box may be used
to give your offering
as you enter for worship.
온라인헌금 바로가기

지난주 헌금			
십 일 조	10,252.00	감사헌금	2,060.00
주정헌금	2,270.00	선교헌금	50.00
지정헌금	2,100.00	주교헌금	132.00
친교헌금	200.00	E M	160.00
절기헌금	50.00		
헌금 합계 : 17,274.00			

-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안내위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통역 수신기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을 모임** 이번 주간은 마을모임이 진행됩니다. 마을모임 교재는 주보 안면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설교 말씀** 오늘 말씀은 이신웅 목사 (신길 성결 교회 원로)께서 전해주십니다
- 2026 호산나 전도 대회** 오늘까지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집회는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창립 38주년 기념예배 & 마을별 운동회** 9월 20일(주일) 오전 10시 ※ 1·2부 연합 예배 (세대통합)로 한 번만 드립니다. 예배 중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으며, 예배 후에는 전교인 단체사진 촬영과 마을별 운동회가 이어집니다. 운동회를 위한 선물 도네이션도 받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 정원혁 집사
- 하베스트 제자훈련 1(HDT1)**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베스트 제자훈련 1을 시작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반 | 6주 과정 - 인도: 담임목사 9월 24일(목) ~ 10월 29일(목) 오전반 10:00 / 오후반 7:30
주일반 | 6회 과정 - 인도: 담임목사 10월 4일·18일·11월 1일·15일·22일·12월 6일 : 오후 1시
- 영유아부·유치부실 리모델링**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

소 천 김봉례 권사의 부군 고(故)김주호 집사께서 지난 9월 9일(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김봉례 권사와 자녀 김태명 집사(김현수집사) 그리고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경미 권사(임 영 집사) 모친께서 9월 6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 타 배영숙 권사

영구 귀국 박미경 집사

손윤례 권사 (한국 방문)

9월 셋째 주간 생일 김광호(13일), 이윤호(14일)

9월 주방 봉사 제 5 남 사역회 & 5 여 사역회

9월 교회 행사

- 9/11~13 (금~주일) 호산나 대회
- 9/20 (주일) 설립 기념 주일, 마을별 운동회
- 9/26 (토) 결혼식 (노채영 & 김누리)
- 9/13 (주일) 마을 모임
- 9/24 (목) 제자훈련 주중반 시작
- 9/27 (주일) 사역회 모임